

시 최초로 근대위안소를 개
설할 때는 근부대주변의 매
춘업자에게 위탁, 주로 日
本 오사카등지의 직업매춘
여성에게 「선불」을 주고 데
려왔지만 南京대학살 이후
본격적으로 근대위안소정
책이 채택되면서부터는 우
선 모집대상이 달라졌다.
과거 매춘의 경험에 있
는 직업여성인 성병전염유
려가 많은 근대위안부로
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
견이 비등해진 것이다.

1939년 제1군 병참
병원에 배속되었던 구의관
麻生徹男 소위가 작성한 「화
류병과 위안부에 관한 의견
서」는 특히 성병예방과 위
안부의 자질향상을 강조하
고 있다.

麻生은 이 의견서에서
「위안부의 연령과 젊음을
꼭 좋다. 内地人(日本人)의
▲ 일본인의 근부대간호원